

# 「2022년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팀 소개

주관기관이 섭외한 공연팀(8개팀)	
1	 <p><b>코리아챔버앙상블 (클래식)</b></p> <p>정통 클래식에서 대중가요까지 클래식 악기를 직접 연주하여 전 연령의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실내악 공연</p>
2	 <p><b>판타지 마법해적단 (매지컬 마술공연)</b></p> <p>마술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스토리 중심의 공연으로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객 참여형 마술 퍼포먼스 공연</p>
3	 <p><b>아카시아 (아카펠라)</b></p> <p>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사람의 목소리로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만화영화 주제곡을 불러주는 세대공감 노래공연</p>
4	 <p><b>낭독극 (관객과 함께 하는 낭독공연)</b></p> <p>관객이 직접 참여하여 배우들과 함께 진행하는 연극공연으로 눈으로만 보는 공연보다 선호도가 높은 관객 주도형 낭독공연</p>
5	 <p><b>세모공 (마술과 개그)</b></p> <p>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호응도 높은 스토리가 있는 관객 참여형 공연. 개그, 마술, 일러스트 퍼포먼스가 결합된 멀티퍼포팅 공연</p>
6	 <p><b>공연예술창작터 수다 (이야기책 공연)</b></p> <p>디지털 오브제를 이용한 이야기 공연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같이 공연을 만들어가는 능동형 공연</p>
7	 <p><b>어쩌다 떠난 여행 (노래놀이 공연)</b></p> <p>동요를 중심으로 한 노래로 놀이를 하는 듯 진행되는 공연으로 모든 연령의 관객의 호응도가 높은 공연</p>
8	 <p><b>김이곤 (영화로 보는 클래식 이야기)</b></p> <p>한국 최고의 클래식 해설가인 김이곤을 통해 영화 속 장면을 함께 보고 듣는 클래식 공연. 기타리스트 안형수의 감미로운 기타 선율이 더해진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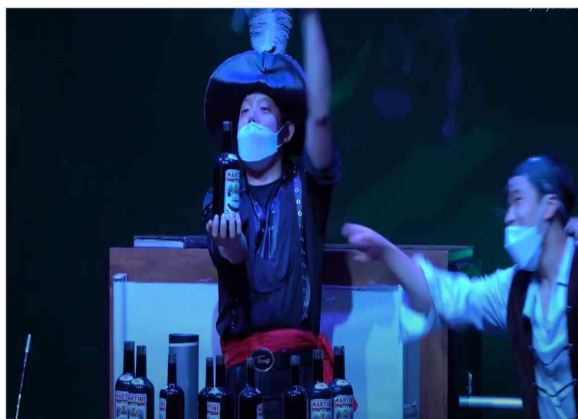


## 2. 판타지 마법해적단(매지컬 마술공연) \_ <마술 퍼포먼스 공연>

판타지 마법해적단은 마법의 구슬을 찾아서 떠나는 마술 퍼포먼스 공연입니다. 등장인물 2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술, 주름관 퍼포먼스, 대형일루션 마술, 관객 참여마술 관객과 함께 마술트릭을 맞춰보는 마술까지. 가족공연이며 꿈과 희망 그리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노력한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스토리까지 합쳐진 마술 퍼포먼스 공연입니다.

판타지 마법해적단은 일산 아쿠아플라넷에서 공연을 진행하였고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많은 초등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재미있다는 리뷰를 남겼으며 유튜브에 실제 공연을 찍어 영상을 업로드 할 만큼 마법해적단 공연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표현했습니다.

- 관객과의 소통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
-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마술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한 퍼포먼스 공연
- 공연 중 관객들에게 마법의 병이 어디 있는지 맞춰보는 관객참여형 공연
- 정식 공연장이 아니어도 360도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마술 퍼포먼스 공연
- 단순 마술공연이 아닌 스토리가 있어 관객이 이해하면서 보는 공연



### 3. 아카시아(아카펠라) \_ <세대공감 만화영화 OST 콘서트>

1980년부터 2020년대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만화영화 주제곡을 통해 만화영화의 장면들을 연기하는 등 기성세대, 청년세대, 청소년, 어린이 등 세대에 구애받지 않고, 전 연령층을 한 데 아우르는 공연으로, 새로운 경험과 멋진 추억을 선사하기 위한 공연입니다. 자녀들에게는 그 자체로 즐거운 만화영화를, 부모님들에게는 그 시절의 추억과 동심을, 그리고 온 가족이 새롭게 만들어갈 멋진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아카펠라그룹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화영화 주제곡을 부르며, 신선한 경험을 선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기성세대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청년세대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서 우리 모두가 다함께 서로가 위로하고 공감하는 즐거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만화영화 주제곡 메들리, 1990년대 만화영화 주제곡 메들리, 라이온킹 OST를 비롯하여 토이스토리OST, 겨울왕국OST, 포텐독ost(똥 밟았네) 공연



#### 4. 낭독극 \_ <관객과 함께 하는 낭독공연>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 중, 극 진행을 함께 할 '관객 배우'를 뽑아 진행하는 양방향 소통형 낭독공연입니다.

배우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기만 하는 단순한 형태의 공연이 아닌, 관객이 참여 가능한 수준에서 함께 호흡하며 극 중 인물이 됨으로써 수동적인 위치에서 공연을 즐기는 것이 아닌, 더 풍부한 경험과 이해를 제공합니다.

부분적인 참여만으로 의의를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관객 주도적인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보고 소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콘텐츠 양식으로 해당 공연을 기획하였습니다.

- ① 공연이 진행되기 전 현장에서 관객배우(3~6명)를 뽑는다.
- ② 관객들에게 맡은 역할에 맞는 소품 혹은 역할명이 적힌 명찰을 준다.
- ③ 작품에 등장하는 옥희, 사랑방손님, 어머니 역할을 맡은 3명의 전문 배우들이 옥희, 외삼촌, 외할머니, 유치원 동무 등의 역할을 맡은 관객 배우들과 함께 공연을 진행한다. 이때, 관객 배우들은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대사를 보며 배우들과 호흡을 맞춰 연기하게 된다.



## 5. 세모공(마술과 개그) \_ <세상의 모든 공연>

개그맨, 일루셔니스트, 비주얼리스트 세사람이 모여 각자의 매력을 뽐내며 메시지를 던져주는 좌충우돌 세모공

정답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엑스, 반쪽짜리 정답은 세모  
반쪽짜리 정답은 무엇일까? 아마 출제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가장 창의적인 답이지 않을까? 창의적인 공연을 꿈꾸는 세 사람이 꼭지점이 되어, 세상의 다양한 공연을 통해 세모난 꿈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공연이 합쳐져 하나의 공연을 만드는 세모공은 공연을 이끌어가며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아이스브레이킹을 하여 관객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공연을 이어주며 웃음을 주는 개그, 화려한 마술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참여형 마술 등 다양한 오브제를 이용해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은 없다, 상상의 한계를 부수는 일루션 퍼포먼스 착시현상을 이용한 옵티컬 일루션을 비롯해 그림자, 저글링 등 다양한 오브제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여주며 신선함을 일깨워 주는 비주얼 아트가 모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창의적인 생각과 꿈을 응원하는 신개념 멀티퍼포밍 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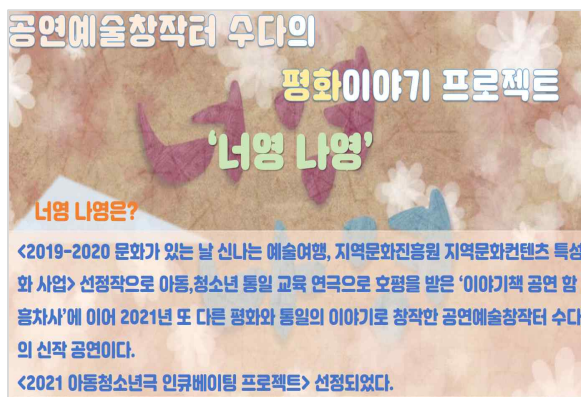
## 6. 공연예술창작터 수다 \_ <이야기책 공연>

어릴 적 할머니한테 듣던 옛날이야기를 시각매체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 입체적인 이야기책을 배경으로 종이인형과 같은 오브제를 활용하여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이 공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각자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작품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공연입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오브제를 활용하여 이야기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극중 대사를 읊어볼 수 있게 만들어서, 보기만 하는 공연이 아니라 함께 공연을 만들어 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오브제 방식에 디지털 오브제를 융합하여 디지털 세대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미디어 북을 통해 아날로그적인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기존 이야기책 공연에서의 이머시브적 기법을 확대하여 모든 관객들이 공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능동적인 소통을 이끌어 냅니다.

20페이지에 달하는 애니메이션 미디어 효과와 3D 배경 등 참신하고 새로운 장치들을 사용하여 아동, 청소년 관객들의 공연에 대한 흥미와 집중도를 향상시켰습니다.



## 7. 어쩌다 떠난 여행 \_ <노래놀이 공연>

김은희, 김영, 이해진이 모인 프로젝트 그룹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공감의 노래인 동요의 화음을 함께 맞춰보고 손뼉치며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

서로 다른 공간에서 노래하다 우연한 기회로 함께 노래하게 하게 된 '어쩌다 떠난 여행'. 그들은 서로 기대어 노래하면서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어 갑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김은희',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의 '김영', '노래패 우리나라'의 '이혜진'으로 구성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진실한 우리 '삶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았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만큼이나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그들이지만, 그 삶의 노래를 세상과 함께 부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함께 노래하는 이유이며,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바램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진행하는 어쩌다 떠난 여행팀의 공연은,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어울려 듣고 부를 수 있는 좋은 노래들을 소개하고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8. 김이곤(클래식) \_ <영화로 보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강좌와 프로그램을 기획·해설해 온 김이곤 예술감독을 통해 듣는 영화 속의 클래식. 영화 속 장면을 함께 보며 즐기는 뮤지션들의 공연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면 모든 것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아가는 것, 여행하는 것 등은 모두 새로운 공부와 발견의 시작점이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고전 영화를 감상할 때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면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듯, 클래식 음악도 배경지식이 있으면, 또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더 들립니다.

"영화로 보는 클래식 이야기"는 고전주의 시대 모차르트와 베토벤부터 현대의 음악 트렌드까지 매회 관련 테마를 다룬 영화를 중심으로 시대적 배경과 음악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